

“화엄경 53선지식중 21명 여성”

해주스님, 불교학회 추계세미나 발표 ‘주목’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는 올 불교학 연구 결실을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제28회 추계 전국 불교학술연구 발표대회’를 6일 동국대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여성·현상학·선·유식학·근대불교사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 논문이 발표돼 한국 불교학계의 왕성한 연구의욕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화엄경)에 나타난 여성선지식들의 모습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남녀의 차별적인 모습이 없음을 조명한 해주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의 ‘입법계품(入法界品)의 여성선지식에 대한 고찰’이 주목받고 있다.

해주스님은 “(화엄경)에 나타난 선제자들을 포함 54명 선지식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21명이 여성 선지식”이라고 지적하고 “(화엄경)에 나타난 42계종 화엄보살도를 총괄하며 화엄의 일승보살도를 대표하는 십지(十地) 계위는 모두 여성 선지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여성선지식의 특징은 △자비가 원만하고 총명한 △세상에 물들지 않은 청정함 △자비가 원만하고 지혜가 두루하여 부처를 탄생시킨 △인욕하고 공경하는 무진공덕자라는 것.

해주스님은 “여성선지식들은 모두 여성이라는 특징적인 모습을 통해 화엄의 일승보살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십지보살의 지위가 모두 여성선지식에 배당된 것은 십지행이 증경계에 들어가 대제대비를 찬

양하는 대표적인 행임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화엄세계에서는 해탈경계로나 남녀의 차별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여성에게 자비·칭정·수순증생의 덕이 있어 부처를 탄생시키는 특징적인 장점을 오히려 부각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불교의 마지막 왕사(王師) 무학자초(無學自超·1327~1405)의 종교·정치·사회적 활동을 조명한 원인규(동국대 역사교육과 강사)씨는 ‘무학자초의 생애 및 활동의 재고찰’에서 “원효암(元曉庵)·송광사에서 나옹스님의 불자(佛子)·의발(衣鉢)을 신표로 받았던 무학대사는 지공·나옹의 법통 계승했던 선승(禪僧)”이며 “무

“무학대사, 나옹스님 법맥 이었다” 황인규씨

간행 등 흥불(興佛)에 주력했다. 또 당시 함흥에 머물고 있는 이상계를 환궁(還宮)케 하는 등 왕실과의 화합을 유도해 비보사찰을 보존하는 등 불교계의 방과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

이에 대해 황인규씨는 “무학대사의 활동은 조선초 변역세력에 대한



◇ 해주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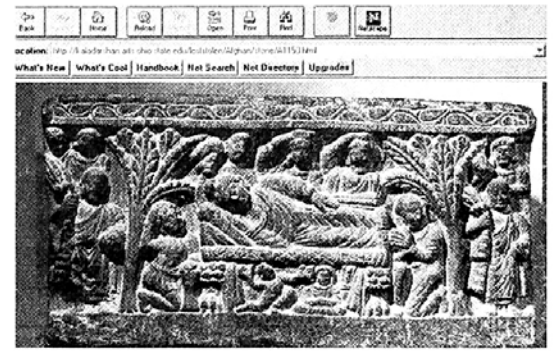


◇ 황인규씨

단순한 도움 차원을 넘어서 당시 소진해진 불교계의 중흥과 개편을 위한 능동적 임장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밖에도 ‘후설 현상학과 불교 유식론의 심상이론’(배의용) ‘일연의 중편조동위 연구’(한중만) ‘승조의 일반무명론 성립에 대한 제문제’(김주경) ‘식에 의거한 경림세계의 허구성과 허구성 속의 법칙성’(김사업) 등이 발표된다.

오종욱 기자



바미안 계곡 불상들 50여점 「감상」

바미안 계곡 불상들 50여점 「감상」

세계 최대 석불인 바미안 대불을 비롯해 아프카니스탄 바미안 계곡에 숨어 있는 불교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사이트는 미국 오하이오주 존 헌팅톤 교수(아시아미술사학)가 개설한 ‘헌팅톤 불교예술’.

아프카니스탄의 불교 예술품 50여점을 그래픽 파일로 제공하는 이 사이트는 그동안 아프카니스탄 등의 불교예술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불자들이 이곳을 방문하면 이국(異國)의 불향을 만끽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바미안 계곡은 2Km에 걸쳐 마치 별집처럼 굴을 파서 만든 승방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곳을 방문했던 헌팅톤박사도 <대당서역기>에서 “이 대불들은 도금으로 빛난다”고 묘사했다.

불상과 벽화에 묘사된 보살·대중의 모습은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헌팅톤 박사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존 헌팅톤 교수가 25년간 아시아에서 수집한 30만장의 사진자료도 연람할 수 있다. <http://kaladarshan.arts.ohio-state.edu/loststolen/lsafgh.html>

교계학술회의 ‘11월 풍성’

한국종교학회가 8일 추계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필두로 원효학연구원, 한국불교문화사연구회 등이 잇달아 학술회의를 갖는다.

한국종교학회(회장 이은봉)가 8일 이화여대에서 ‘해방후 종교 50년’을 주제로 개최하는 학술회의의 불교·

인도철학 분과토의에서 ‘지공화상의 선사상’(신규택) ‘인도종교의 신과 초월의식’(김현준) 등이 발표된다.

원효학연구원(원장 김영태)은 11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에서 원효스님이 가르친 심심(信心)의 근본을 조명하고자 ‘원효성사의 신관(信觀)

종교학회·원효학연 등 연구발표 잇달아

연구’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마련한다. 이번 회의에는 보광스님(동국대 불교학)이 ‘원효의 정토교화에 보이는 신관’, 인환스님(동국대 선학)이 ‘보살계본기’에 나타난 원효의 신관, 은정회교수(서울교대 윤리학)가 ‘원효의 <기신론>에 나타난 신관, 김영태

“종교와 사회문화 유기적 관계”

윤승용씨 ‘현대 한국종교문화의 이해’ 펴내

종교인구가 국민의 절반을 넘고, 상당한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서로 다른 종교들이 한데 어울려 있는 우리나라의 종교문화를 체계적으로 소개한 책이 바로 (현대 한국종교문화의 이해)(한울아카데미 펴냄)이다.

이 책은 한국종교연구회 연구위원인 윤승용씨가 우리나라의 종교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개별 종교가 차지하는 종교문화적 위상을 시대적 흐름과 연결해 전개한 것. 이 책은 제



부 ‘사회구성과 종교연상’ 제2부 ‘현대 한국종교의 전개’ 제3부 ‘한국종교연상의 이해’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60년대 이후 세계 체제 속의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한국의 각 종교가 취한 반응이 가지는 사회학적 의미를 개괄하고, 한국사회구성의 특성과 종교연상의 역할과 관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불교의 경우 8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민족문화의 전통 가치를 인식하고 재평가 하는 분위기에 그 잠재력이 재가시도단체들의 등장등 점차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고찰했다.

학술단신

8일 이기영박사 추모법회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은 8일 오후3시 불연 이기영 박사 1주기 추모법회를 갖는다.

이번 이기영박사 추모법회에는 후학들이 펴낸 이기영박사 추모문집 <15 걸음의 끝은 마음에 있다>의 출판 기념회도 함께 열린다. (02)4311-6167

김용욱박사 ‘벽암록’ 강의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박학다식한 언변으로 널리 알려진 김용욱박사(15일부터 매달 셋째주 토요일 오후3시 동송동 도솔서원에서 ‘벽암록’을 강의한다.

‘벽암록(碧巖錄)’은 설득중현이 고승들의 문답백칙(問答百則)을 엮었고 원오스님이 해설을 붙인 선서(禪書). (02)744-7992



“지옥의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

박영철씨 ‘나라카에서 지옥으로’ 논문발표

“심판과 결과만 중시 불교 사상과 거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地獄)은 범어인 ‘나라카’의 중국적인 번역일 뿐 부처님이 설하신 나라카 본 뜻이라고 볼 수 없다”

박영철씨(서울대 역사교육학 강사)가 최근 <역사교육(제63호)>에 소개한 ‘나라카(Naraka)에서 지옥으로-불교의 번역과 중국명’에서 따르면 나라카란 죄업(罪業)에 의해서 느끼는 극고(極苦)의 처소를

지칭한다는 것.

나라카가 번역될 당시, 유교(儒敎)가 주요 사상이었던 중국에서는 괴력난신(怪力亂神)을 철저히 부정했다. 이에 따라 나라카는 지옥(地獄), 협처(狹處), 태산(太山) 등으로만 한정 번역됐다.

박영철씨는 “지옥에서 옥(獄)의 의미는 심판의 과정과 결과만을 한정시킨 뇌옥(牢獄)의 성격이 짙다”며 “이것은 중국의 격의불교(格義佛敎)가 낳은 산물이므로 나라카의 본 뜻을 바로 세우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벳에서의...’ 등 홍콩 상영 포기

홍콩은 최근 중국과 티벳을 주제로 미 할리우드가 제작한 영화 ‘티벳에서의 7년’ ‘레드 코너’ 등의 수입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에 대해 세계 영화인들은 “홍콩이 지난 7월 중국에 편입된 이후 강화된 검열제도 때문”이라고 추측해 주목된다.

홍콩의 주요 일간지 The South China Morning Post도 “리처드 기어가 주연한 MGM 영화사의 최근 신작 ‘레드 코너(Red Corner)’에 대해 중국은 극장 뿐만 아니라 비디오 상영도 금지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월트 디즈니사(社)의 ‘쿤둔(Kundun)과 브래드 피트가 열연한 ‘티벳에서의 7년’(Seven Years in Tibet)이 홍콩에서 상영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그동안 할리우드 영화에 우호적이던 홍콩의 태도 변화는 중국이 최근 달라리 라마의 일생을 조명한 할리우드 영화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티벳에서의 7년’ ‘쿤둔’ 등은 달라리 라마의 인생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폭력적인 제국주의 나라로 묘사하고 있다.

스리랑카 민족분쟁 스님들 중재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스님 5천여명이 17일 타밀등 소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성직자를 차별하는 약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지지하는 대규모 평화 행진을 전개했다.

평화행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성직자협의회 바타폴라 난다미 회장은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이 나라에 평화가 깃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며 “법제정을 통해 스리랑카가 직면하고 있는 종교윤리적 위기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스리랑카는 8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타밀족 분리주의자의 테러에 의해 5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종교·민족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藥)이 되는 신비한 약용식물 『백화사설초』

암을 퇴치 예방, 각종 질병에 효과 입증

기적의 한국산 약초

★ 특허출원 제 26218호

신비한 약초로 생약업계에서 구전되어온 백화사설초(白花蛇舌草)가 지난 93년부터 우리땅에서 재배가 이루어져 최대의 화제가 되고 있다. 「합암과 소염」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생약재 백화사설초를 직접 재배하고 앞장서고 있는 사람은 김나진자 사장과 공급에는 불심원 원장 법현법사이다.

김나진자 사장은 30년간 청과물 도매업으로 그 분야에서는 성공을 했으나, 오랫동안 객지생활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부부는 양의는 물론이고 한방병원까지 다녔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고통과 실망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중 우연히 친척 동생으로부터 「백화사설초」의 효능을 듣고 복용한 결과 혈액순환장애, 위장병, 각종 염증성 질환, 피부병, 마비증상등의 합병증을 말끔히 치료할 수 있었다.

김사장 부부는 백화사설초의 덕택으로 모든 병들이 완전히 치료되어 새 생명을 얻고 이 사설초의 효능에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병원에서 치유 불가능 선고를 받은 다른 환자들에게도 권유 다른 약을 일절 쓰지않고 백화사설초만으로 꾸준히 병을 다스리며 치유하고 있다.

이들 부부의 회생하게 된 소식을 듣고 약초를 구입하게 된 사람들도 대단한 효과를 보고 공감하게 되었으며 불심원 원장 법현법사는 스님들과 2천만 불자들의 건강에 앞장서고 있다.

특징 및 효능

이 풀의 특징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항체 형성을 촉진시키는 힘의 탁월함에 있다.

백화사설초는 청열해독약(淸熱解毒藥)으로도 쓰인다. 「청열」이란 한량(寒凉), 약성(藥性)으로 체내의 이열(熱)을 내린다는 것이며, 「해독」이란 일반적으로 감염증의 발열이나 수반되는 병리변화 및 각종 독소로 인한 반응을 풀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백화사설초는 약성이 한량하다. 이 열을 내리고, 체내의 응어리를 풀어주며 독소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한방용어로 청열·기어·소응·해독이라고 한다.

※ 싱가포르대학 학장 이광선 박사는 “간암으로 홍콩의 권위있는 어느 병원에서 조차 치료약이 없다고하여, 백화사설초를 매일 150g 씩 전량해서 복용하니 3개월만에 완치되었다.”고 한다. (「녹차와 약차」 동화문화사 펴냄, 신재용 생활필서 중에서)

■ 지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백화사설초를 복용하시어 완쾌되시길 기원합니다.

각종문헌에 나타난 효능

- ◎ **항암본초**(상민편 저, 김수철 역주) 위암, 식도암, 직장암, 자궁암, 기타암증
- ◎ **묘약기방**(조규형 저, 법진문화사 펴냄) 간염, 장염, 요초감염, 맹장염, 편도선염, 인후염, 각종 종기, 타박상, 위암, 직장암, 간암, 자궁경암, 방광암
- ◎ **녹차와 약차**(동화문화사 펴냄, 신재용 생활필서) 간염, 장염, 요도염, 인후염, 급성 충수염
- ◎ **백화사설초**(진준인 저, 동도문화사 펴냄, 한방의학대사전종) 급성 충수염

■ 추천의 말

“백화사설초는 한의학의 대표적 항암생약이다.” 한국자연생약보호협회장 이학번사 한영채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신비한 약용 식물인 백화사설초” 경남생약연구소장 약리학사 성현길

◆ 금급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신농산

(051) 465-5100, 467-5200